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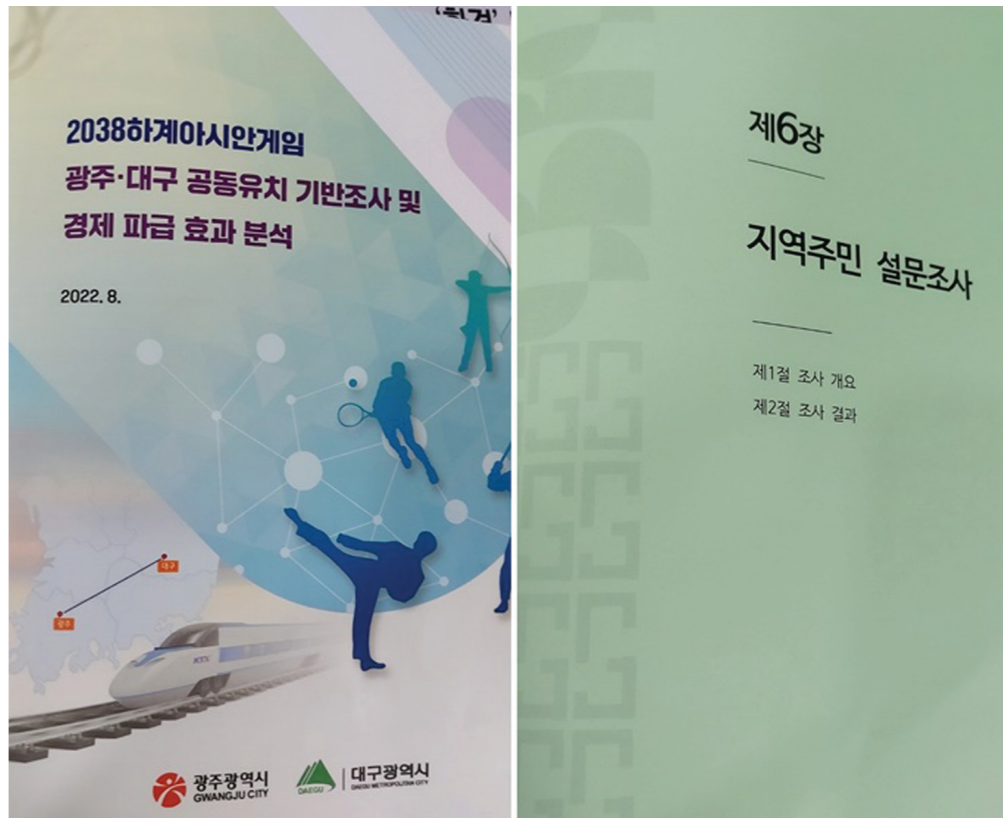
광주 2038아시안게임 연구용역 '총체적 부실' 드러났다

광주시감사위원회 용역특정감사 결과 발표 광주·대구, 조사기관·표본 추출·분석 제각각 시민인식 설문조사 표본 왜곡, 내용 하자도 용역과제 심의 없이 예산 편성 "경고·주의"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위한 광주시의 연구 용역이 허점투성(뉴스스
2022년 11월 첫 보도)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
왔다. 대회 유치 시민 인식 설문조사 표본이 왜
곡됐고 내용상 하자도 많아 '총체적 부실 용역'
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38아
시안게임 공동 유치 기반 조사 용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
치 기반 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공동연구
결과보고서(이하 연구 보고서)'의 내용상 하자
가 드러났다.
연구 보고서는 대회 유치 시민 인식 설문조
사 표본 모집 때 인구 통계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남성 비율(58.9%)과 20~40대 비율(78.1%)

을 인구 비례보다 높게 잡았고, 50~60대 이상
(22%)과 여성(41.1%)은 과소 표집했다.
실제 연구 당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광
주시민 중 남성은 49.5%, 여성은 50.5%였다.
20~40대는 52.7%, 50대~60대 이상은 47.3%로
집계됐다.
특히 공동 연구자인 대구 조사기관과 동일
한 표본 설계 방식(광주는 대면 설문, 대구는
전화 조사)을 적용하지 않고, 신뢰수준·표본오
차, 조사 기간·방법 등도 누락했다.
시 감사위는 표본은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
는 점,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대회 유치 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
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의 다른 내용상 하자도 수두룩
했다.

총사업비 단위를 100만 원으로 해야 하지만
억 원으로 잘못 기재했고, 선수단 수치도 본문
과 표에 다르게 적었다.
대회 운영비·건설비 환산 시점을 달리 적용
하거나 최종 투입액·경제 파급효과 합계·취업
유발 인원의 계산에도 오류가 있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연도를 2004년
으로 잘못 쓰거나 4차례 개최된 태국 방콕 아
시안게임을 3차례 열렸다고 잘못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조레도 어겼다. 조레상 예산
1000만 원 이상 학술 용역은 용역 과제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없이 예산
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체육진흥과는 2021년 9월 예산 8000
만 원을 들여 광주전남연구원에 이번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해 8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시 감사위는 광주시에 관련자를 주의 처분
하라고 했다. 또 지방계약법상 학술·연구 용역
을 의뢰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라고 강조했다. 조레에 따라 학술 용역 과제 심
의를 받아야 하는 용역은 반드시 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시 감사위는 광주전남연구원에는 연구 윤리
를 저버린 관련자를 경고 처분하라고 요청했
다. 연구 보고서 하자 보완, 설문조사 재실시,



2038 하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기반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보고서. 자체 검증 체계 도입도 요구했다. 이슬비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곡성 근교형 내륙관광 중심지로"

도민과의 대화... "곡성군 위해 적극적인 지원 펼칠 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곡성군을 근교형 내륙관광 중
심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곡성군 만다비체육센터에
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호남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살기 좋은 도시 정주 여건 개선, 골목상권

강화,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 대항강 도립사
관광자원화, 청정자연·축제 기반시설(인프
라) 구축 등 곡성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민과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진호건 전남도의원, 운영
규 곡성군의회 의장, 지역인사, 군민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철 군수는 환영사에서 "김영록 지사
의 노력과 열정 덕에 수서발 SRT가 오는 9
월부터 전라선을 지나가면서 구례와 순천은
물론 곡성도 더 많은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재정지원이 필요한 '옥과향교
~옥과교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해당 구역의 통행량이 많아짐에 따른 이
용차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옥과향교
~옥과교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3억 원을 투입해 길이 339m, 폭 6m의 도
로 개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곡성군은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단계
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17억
원의 예산으로는 한계에 달해 도로 개설 등
에 필요한 도비 8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
의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시군 현안사업 예산으로 5억 원 정도는 지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사업 3
억 원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따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조직개편' 윤곽...동부지역본부 확대

기존 1국 6과 154명→1본부 3국 1관 11과 320명 확대 경제·문화 등 4개 실국 체제 확대 조직개편안 마련

전남도가 19일 민선8기 1주년에 맞춰 행정
의 효율성과 균형발전, 동부권 행정서비스 향
상을 위해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을 중심으
로 한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동부
지역본부 4개 실국 체제 확대 개편 공약 이행
과 행정의 효율성·통합성, 균형발전, 산단 조
성·투자유치 활성화, 동부권의 경제·문화 기
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
이다.
특히 오는 7월 통합청사로 확대해 문을 여는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하
도록 기존 3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
함으로써 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동부권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토록 했다.
동부지역본부는 기존 1국 6과 154명 규모에
서 1본부 3국 1관 11과 320명(공무원 259명·
공무직 등 61명) 규모로 확대된다. 전체공무원
정원수 대비 22%가 동부본부에 배치된다.
조직은 일자리투자유치국(3급), 문화산림휴
양국(3급), 환경관리국(3급)과 여순사건지원단
(준국), 민원행정담당관으로 꾸려진다.
동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지원 기
능, 도립미술관, 정원산업 등과 연계한 문화와
산림휴양 기능을 강화에 중점을 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또 본격적인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여
순사건지원단 이전으로 희생자 등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실조사 진행도 기대된다.
도 본청은 행정부지사 직속 국제협력과 도 정책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광
역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균형성과담당관을 신
설해 상생협력과 조광역행정업무에 신속히 대
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관광문화체육국은 남해안 개발과 마이산산
업, 융합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과를 신
설하고, 문화 부서의 동부지역본부 이전에 따
라 자치행정국의 희망인재육성과를 이진해 관
광인재체육국으로 개편했다.
에너지산업국은 에너지신산업과를 에너지
정책과로, 에너지공대지원과를 미래에너지산
업과로 변경해 조직을 보강했다.
해양수산국은 수산자원과를 친환경수산과
로 명칭을 변경해 친환경수산 기능을 강화했
다.
전남도는 조직개편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
고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도의회에 산정
해 가결되면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해 시행할 계
획이다.

소득계층	보험료 (월)	급여비 (월)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47,000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00,000원	1.7배
3분위	79,147원	1,600,000원	2.1배
2분위	48,103원	1,250,000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1,380,000원	5.3배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